CHUNGBUK WOMEN FOUNDATION ISSUE PAPER 제17호 2024. 2.

# CBWF 이슈페이퍼

발행인 | 박혜경 발행일 | 2024. 2. 29. 발행처 | (재)충북여성재단

# 충북 청년 여성의 삶과 지역 정주[1)]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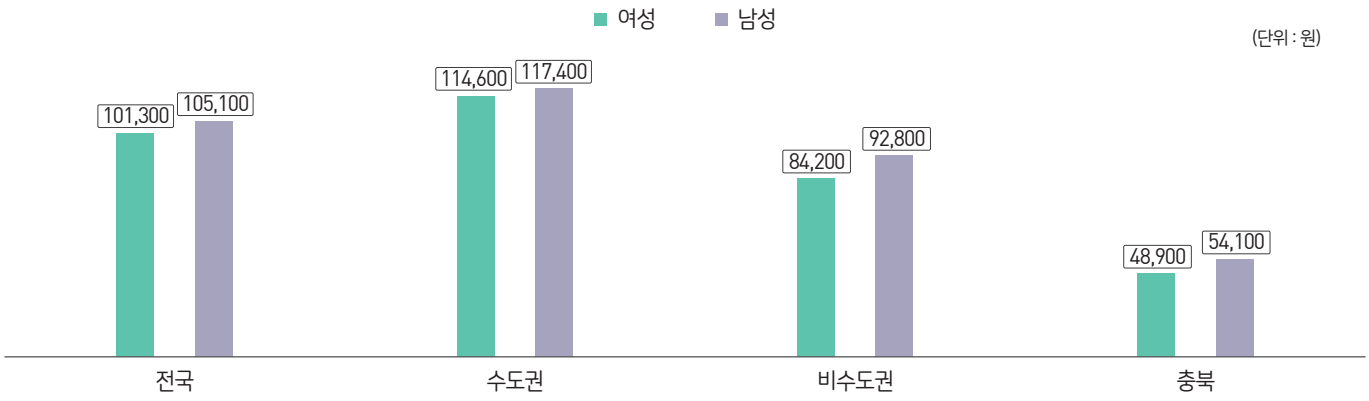
**황경란** 충북여성재단 연구위원

## 1. 충북 청년의 삶과 가치관

### 1) 사업체 규모별 일 · 가정 양립 제도 활용 정도

#### (1) 구직 준비 및 경험

- 전국, 수도권, 비수도권 청년들이 자격증 취득, 취업 등을 목적으로 지출하는 월평균 자기계발비를 확인한 결과, 수도권은 평균적으로 11만원 이상, 비수도권은 남성은 9만원, 여성은 8만원 정도를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
- 한편, 충북 청년들의 월평균 자기계발비 지출은 여성이 월 48,900원, 남성이 54,100원으로, 수도권 대비 약 50%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됨
- 면접조사 시 충북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했던 여성들에게서 취업 준비 기간과 비용이 부담되었다는 진술 내용과 연결해볼 때, 수도권과 충북의 취업 환경 및 취업 준비 환경(학원 등)의 차이로 유추해볼 수 있음




자료 : 국무조정실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청년삶실태조사」, 2022. 원자료분석.
주1. 19~34세 인구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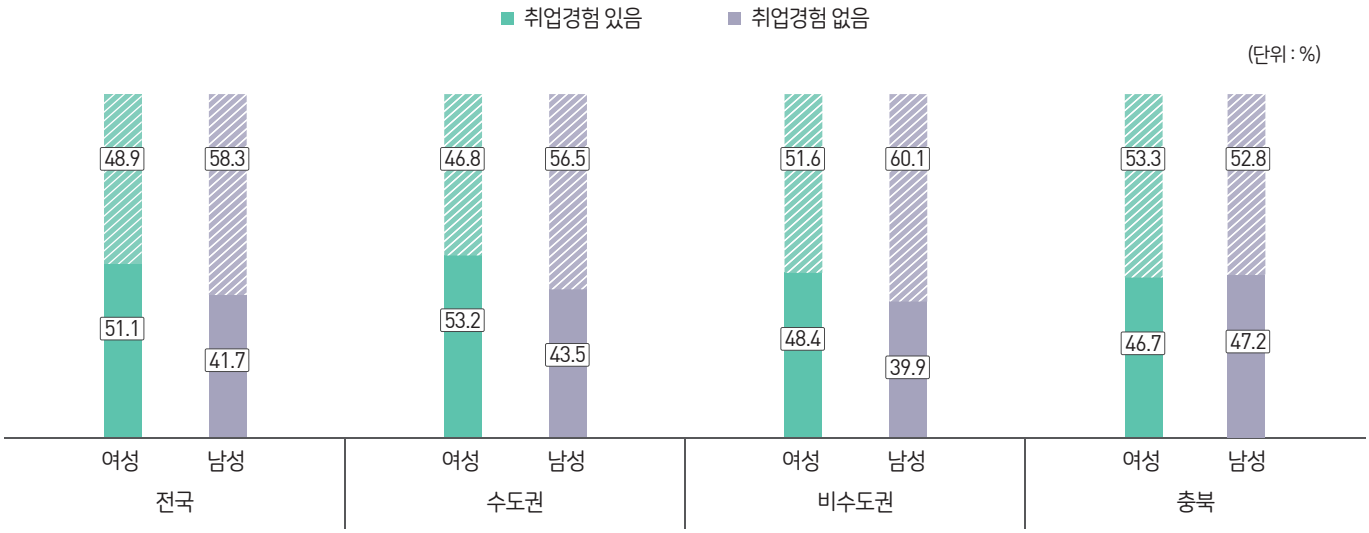
[ 그림 1 ] 전국, 수도권, 비수도권, 충북 청년의 자기계발비

---

황경란 · 정의솔(2023), 「충북 청년여성의 유출현황 및 정책과제」. 연구를 재구성함

### (2) 일 경험

- 전국, 수도권, 비수도권, 충북 청년들의 성별 취업 경험을 확인한 결과, 수도권과 비수도권에서 모두 남성 대비 여성들의 취업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는데, 충북에서는 여성에 비해 남성의 취업 경험이 더 많았음
- 충북 여성들의 취업 경험은 46.7%로 비수도권 여성 평균인 48.4%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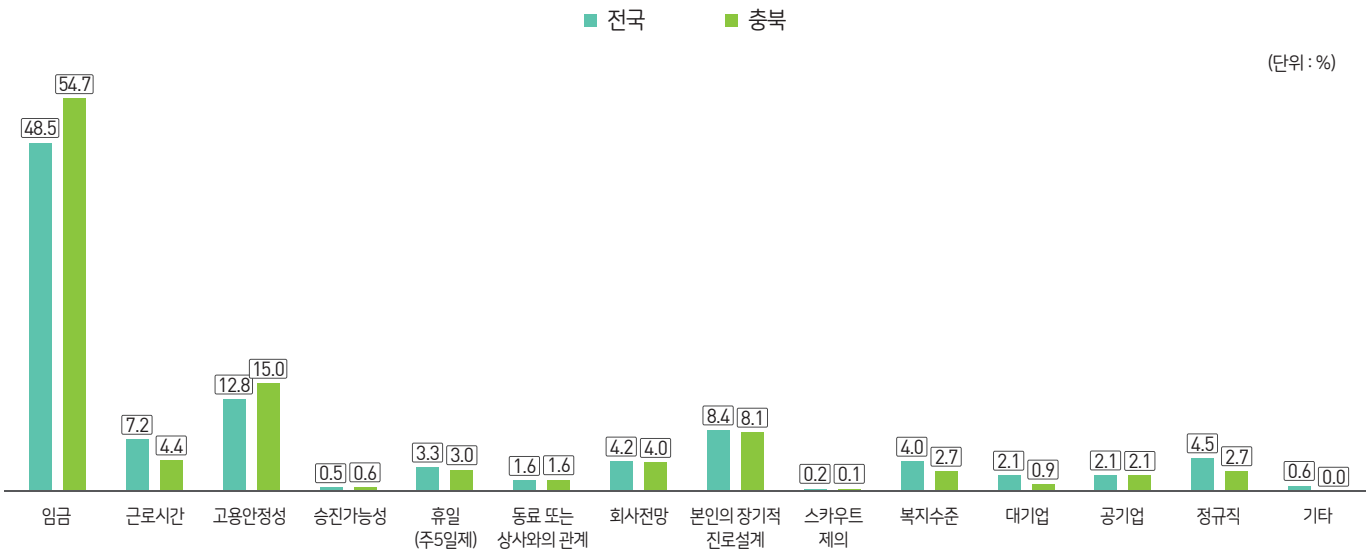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국무조정실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청년삶실태조사」, 2022. 원자료분석.

주1. 19~34세 인구

[ 그림 2 ] 전국, 수도권, 비수도권, 충북 취업 경험

- 청년들에게 이직 및 구직 시 영향요인을 확인한 결과, 가장 중요한 요인은 임금이었으며, 다음으로 고용 안정성,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에 대한 응답이 많았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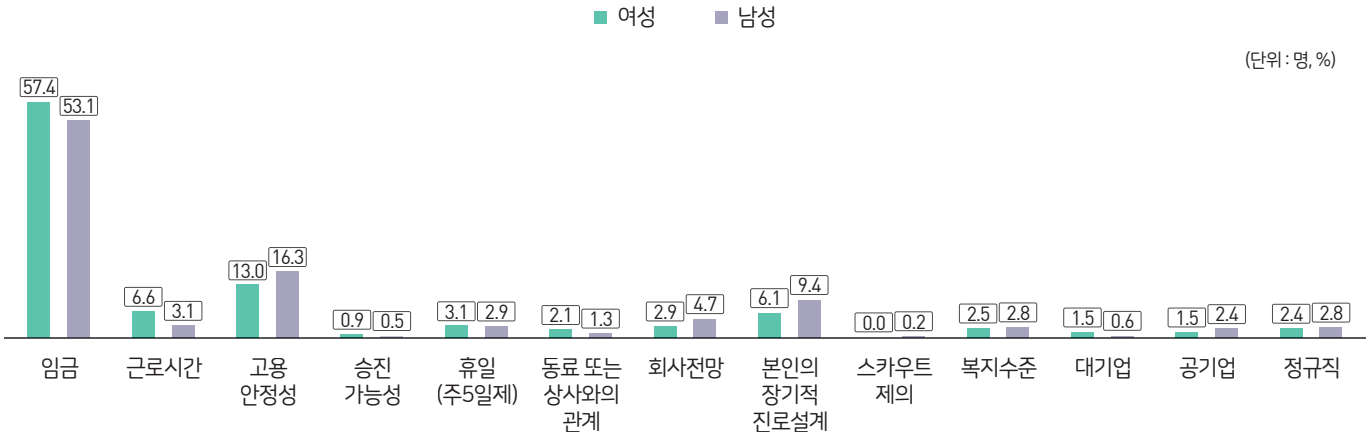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국무조정실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청년삶실태조사」, 2022. 원자료분석.

주1. 19~34세 인구

[ 그림 3 ] 전국, 충북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(1순위)

• 충북에 거주하는 청년들도 이직 및 구직 시 중요한 영향 요인으로 임금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, 여성의 경우 임금(57.4%), 근로시간(6.6%)에 대한 응답률이 남성보다 높았고, 남성은 여성보다 고용 안정성(16.3%), 본인의 장기적 진로 설계(9.4%)에 대한 응답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




자료 : 국무조정실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청년삶실태조사」, 2022. 원자료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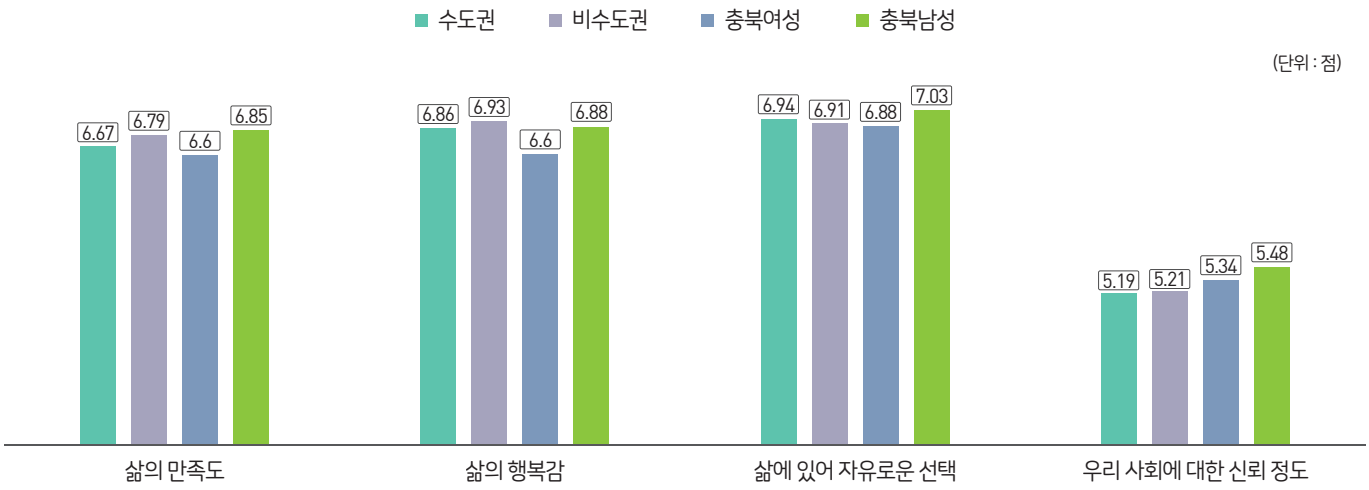
주1. 19~34세 인구

[ 그림 4 ] 충북 성별 이직 또는 구직 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(1순위)

## 2) 충북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 및 사회 인식

• 충북 청년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와 사회 인식에 대해 수도권, 비수도권 평균과 비교해본 결과, 충북 여성들의 삶의 만족도와 행복감, 삶에 있어 자유로운 선택 정도는 수도권, 비수도권, 충북 남성 평균보다 낮은 편으로 확인됨

• 우리 사회에 대한 신뢰 정도는 충북 남성과 여성 모두 수도권, 비수도권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




자료 : 국무조정실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청년삶실태조사」, 2022. 원자료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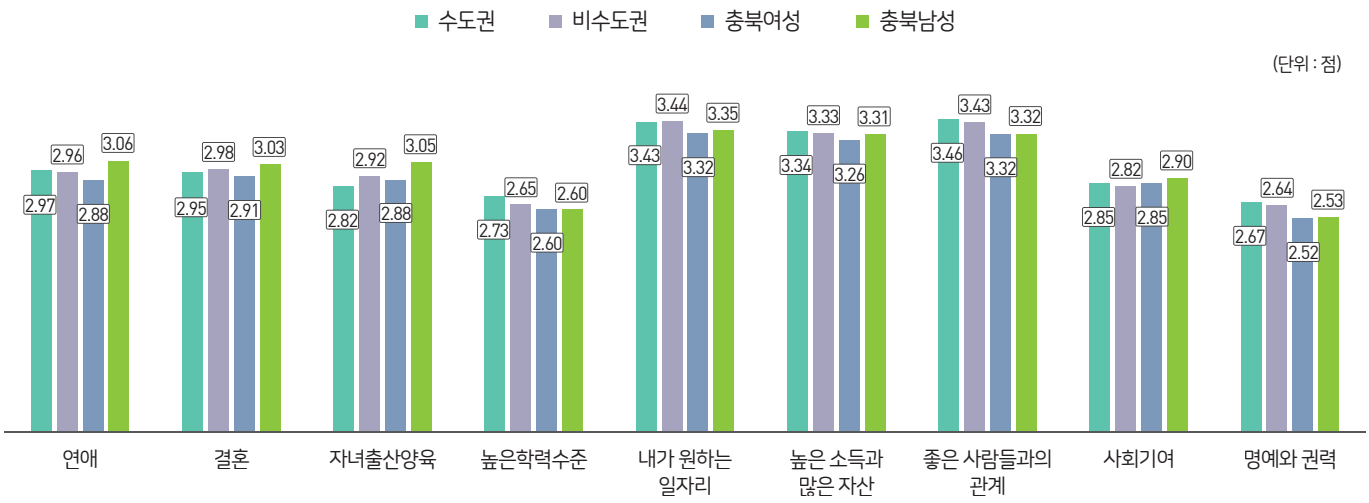
주1. 19~34세 인구
2. 11점 척도(0~10점)

[ 그림 5 ] 수도권, 비수도권, 충북 청년의 전반적 만족도 및 사회 인식

### 3) 충북 청년들의 삶에 대한 인식

#### (1) 바라는 삶

- 충북 청년들의 바라는 삶에 대해 확인한 결과,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성들은 향후 내가 원하는 일자리,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가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편이었음
  - 충북 청년 남성들도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고, 다음으로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, 높은 소득과 많은 자산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음
  - 연애, 결혼, 자녀 출산 및 양육과 관련하여 충북 남성은 연애, 결혼, 자녀 출산 및 양육에 대해 중요한 편으로 인식하고 있었고, 상대적으로 충북 청년 여성은 다른 삶의 요소들보다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




자료 : 국무조정실·한국보건사회연구원, 「청년삶실태조사」, 2022. 원자료분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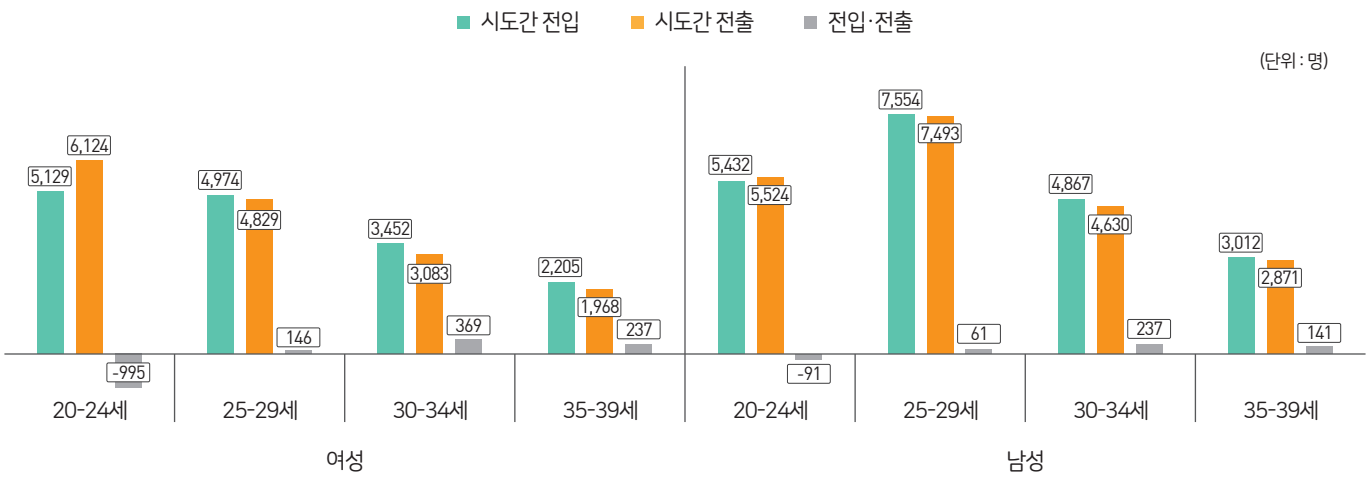
주1. 19~34세 인구
2. 4점 척도 "① 전혀 중요하지 않다, ② 중요하지 않다, ③ 중요하다 ④ 매우 중요하다"

[ 그림 6 ] 수도권, 비수도권, 충북 청년의 청년의 바라는 삶

## 2. 충북 청년 여성의 지역이동 현황

### 1) 충북 청년들의 성별 지역이동 현황

- 2023년 충북의 20~30대 청년 인구 전입·전출 현황을 살펴보면, 충북 청년 중 가장 전출이 많은 집단은 25~29세 남성이고, 전출 대비 전입이 많지 않은 인구 순유출 집단은 20~24세 여성임
  - 2023년에는 25세~39세 연령의 여성 집단에서도 인구 순유입이 발생하였으나, 20~24세 연령에서 995명 순유출이 발생하여 [그림 8]과 같이 20~30대 청년 여성 집단에서 총 243명이 순유출됨
  - 충북의 청년 남성은 20~24세 연령 구간에서 91명 순유출되었으나, 청년 여성에 비해 유출 인구가 많지 않아 [그림 8]과 같이 20~30대 청년 남성집단에서 총 348명 순유입된 것으로 확인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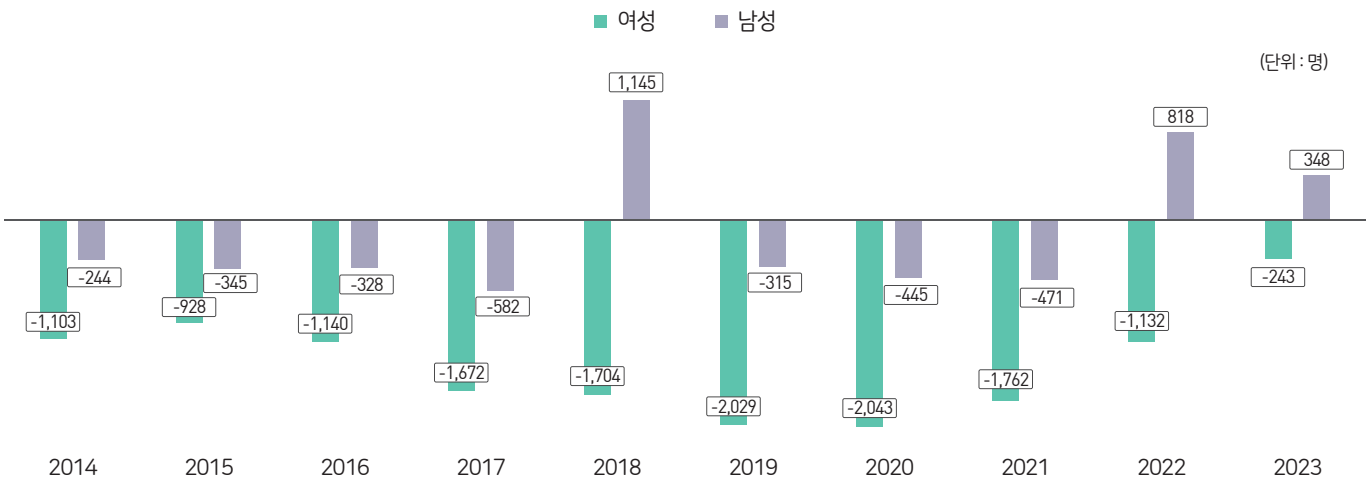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주 : 20~39세 순이동자 수

[ 그림 7 ] 충북 청년 성별 인구 전입·전출 현황(2023)

• 충북 청년 인구 중 지역을 이동한 인구 현황과 성별을 고려하여 확인한 결과, 지난 10년간 충북에서 순유출된 충북 청년 인구 중 대다수가 여성이었다는 것이 확인됨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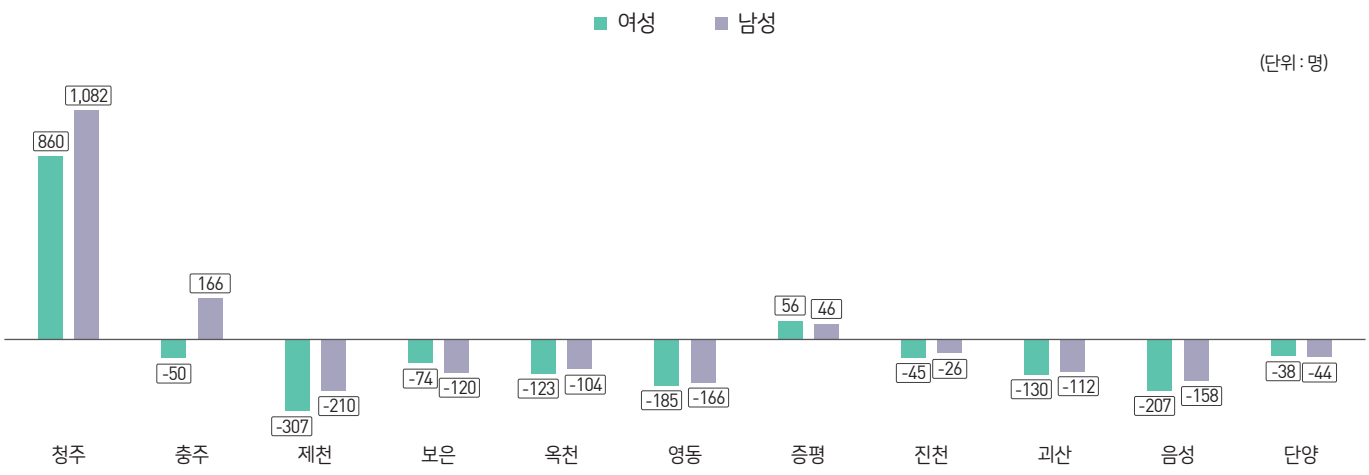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주 : 20~39세 순이동자 수

[ 그림 8 ] 충북 청년 인구 순이동자 수(2014~2023)

• 충북에서도 20~30대 청년이 순유입된 지역은 청주와 증평이고, 청년 남성보다 여성의 지역 이동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지역은 충주, 제천, 음성, 옥천, 영동, 진천, 괴산 순이었음

- 단양의 경우, 청년 남성과 여성 모두 순유출되었으나 청년 남성의 유출 정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
- 청년 남성 인구가 순유입된 지역은 청주, 충주, 증평으로 모두 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거나 계획 지역에 해당 되어 청년 인구 남녀 모두 감소하는 지역과 격차가 커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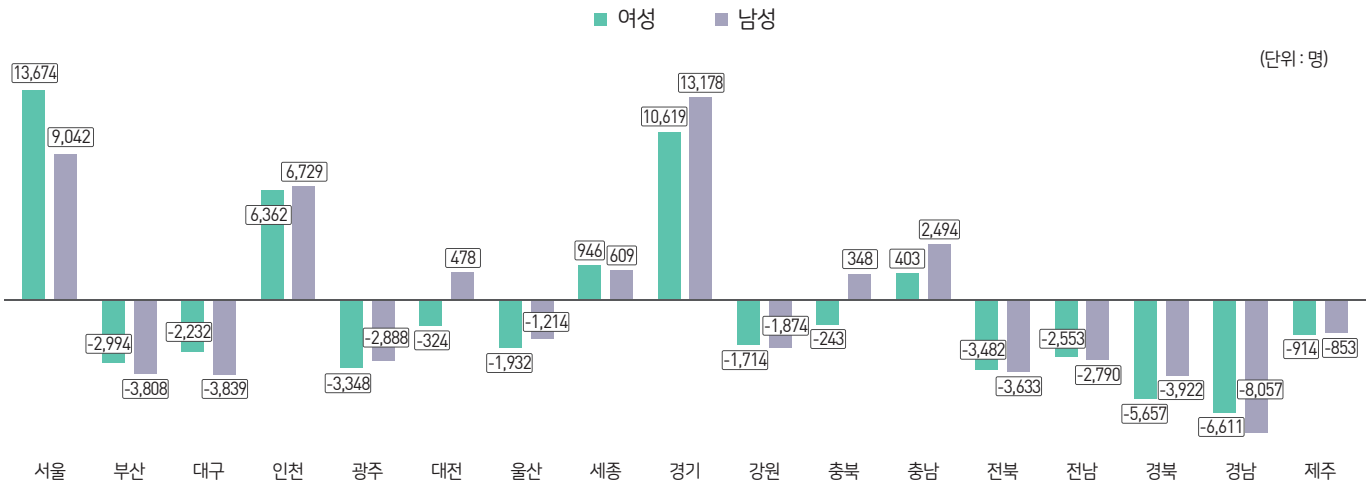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주 : 20~39세 순이동자 수

[ 그림 9 ] 충북 시 · 군별 청년여성과 남성의 순이동 현황(2023)

- 충북은 같은 충청권역에서도 충남에 비해 청년 여성 인구 유출 정도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됨
  - 전국 17개 시 · 도 중 경상도와 전라도 지역의 청년 유출이 가장 심각하고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유출 정도가 완화됨
  - 전국에서 청년 여성이 순유입된 지역은 주로 수도권이었으며 서울(13,674명), 경기(10,619명), 인천(6,362명)으로 청년 인구의 수도권 밀집 현상을 확인할 수 있음
  - 2023년에는 세종과 충남에도 청년 여성 인구가 순유입된 것이 확인되며, 같은 중부권에 해당하는 충북과 대전은 청년 여성이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됨
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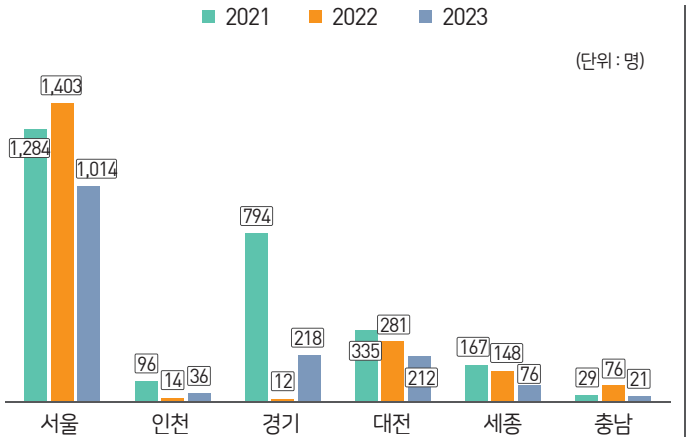
주 : 20~39세 순이동자 수

[ 그림 10 ] 전국 시 · 도별 청년여성과 남성의 순이동 현황(2023)

## 2) 충북 청년들의 전출, 유입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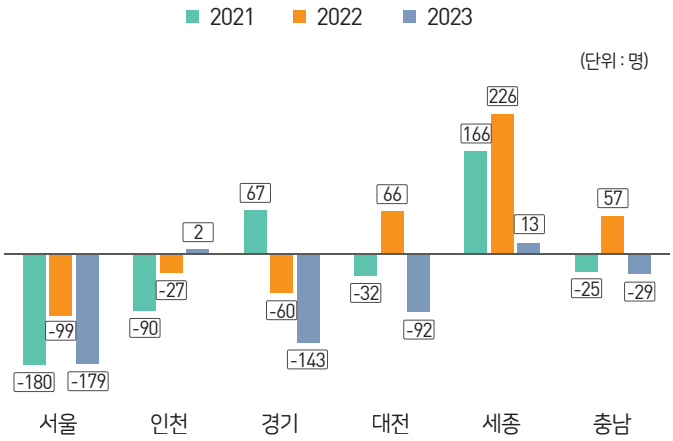
• 충북 청년 여성들이 주로 이동하는 6개 시 · 도를 중심으로 최근 3년간 순이동 현황을 살펴본 결과, 여성과 남성 모두 20대에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유출되는 인구가 많았고, 30대에는 수도권으로부터는 오히려 인구가 유입되나 인근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으로 확인됨

- 충북에서 거주하던 20대 여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서울, 경기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고, 인근 지역으로도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됨
- 반면, 30대 여성은 서울, 경기, 인천과 같은 수도권에서 오히려 순유입이 발생하였고, 대전, 충남 등 인근 지역에서도 2023년에는 순유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, 세종으로는 꾸준히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음
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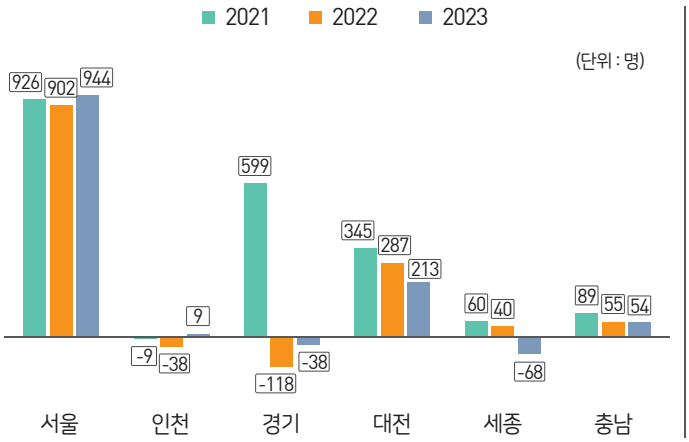
[ 그림 11 ] 충북 20대 청년 여성 순유출 지역(2021~2023)
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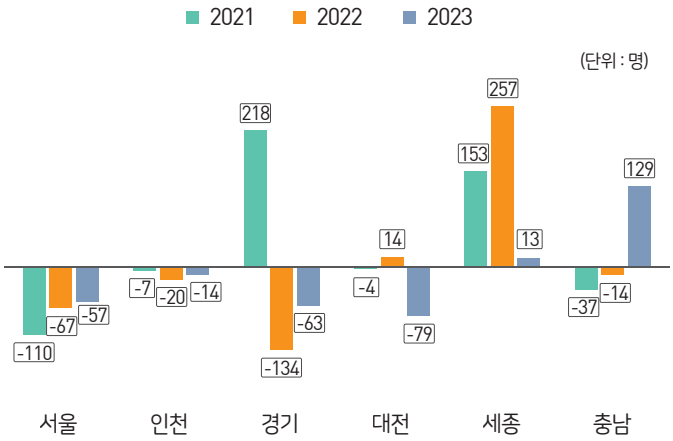
[ 그림 12 ] 충북 30대 청년 여성 순유출 지역(2021~2023)

- 충북에서 거주하던 남성들 역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20대는 서울로 가장 많이 이동하였고, 대전 등 인근 지역으로도 순유출된 것으로 확인됨
- 30대 남성 집단은 30대 여성과 유사하게 수도권으로부터는 순유입이 발생하고 세종, 충남 등 인근 지역으로는 인구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됨
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[ 그림 13 ] 충북 20대 청년 남성 순유출 지역(2021~2023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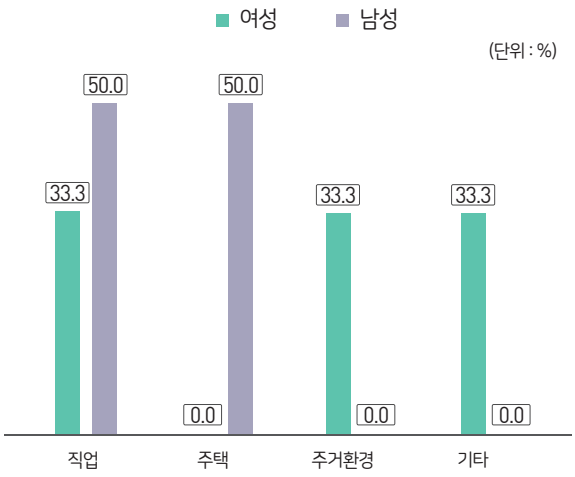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

[ 그림 14 ] 충북 30대 청년 여성 순유출 지역(2021~2023)

### 3) 충북 청년들의 전출, 유입 지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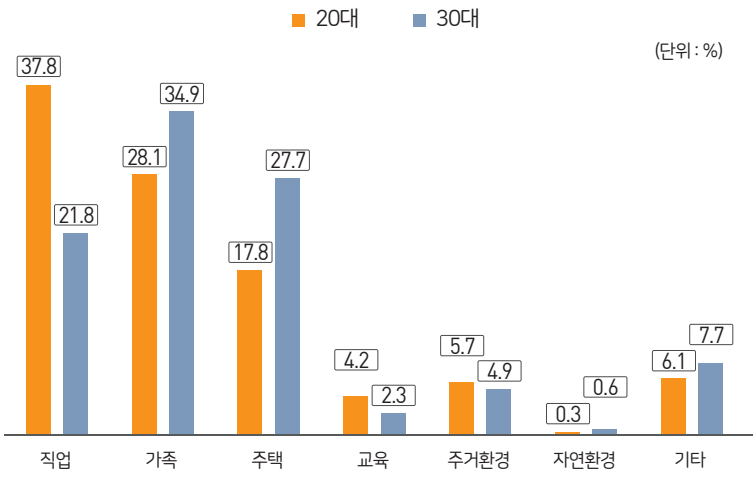
- 충북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입한 청년들에게 그 이유를 확인한 결과, 성별에 따른 차이가 확인됨
  - 충북 남성은 주로 직업, 주택 문제로 충북 → 다른 시 · 도로 전입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확인된 반면, 충북 여성은 직업, 주거 환경, 기타 사유가 주로 확인됨
  - 지역을 이동한 충북 여성 중에서도 20대는 직업(37.8%), 가족(28.1%), 주택(17.8%) 사유로 지역을 이동했다는 응답이 주로 확인되었고, 30대 여성은 가족(34.9%), 주택(27.7%), 직업(21.8%) 순으로 지역이동 사유가 확인되어 연령대별로 차이가 있음이 확인됨
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, 원자료 분석.

주 1 : 20~39세 인구
2 : 직업(취업, 사업, 직장 이전 등), 가족(가족과 함께 거주, 결혼, 분가 등), 주택(주택 구입, 계약 만료, 집세, 재개발 등), 교육(진학, 학업, 자녀 교육 등), 주거 환경(교통, 문화 · 편의 시설 등), 자연환경(건강, 공해, 전원생활 등), 기타(그 밖의 사유)

[ 그림 15 ] 충북 청년 성별 지역이동 사유(2021)




자료 : 통계청, 「국내인구이동통계」, 원자료 분석.

주 1 : 20~39세 인구
2 : 직업(취업, 사업, 직장 이전 등), 가족(가족과 함께 거주, 결혼, 분가 등), 주택(주택 구입, 계약 만료, 집세, 재개발 등), 교육(진학, 학업, 자녀 교육 등), 주거 환경(교통, 문화 · 편의 시설 등), 주거 환경(교통, 문화 · 편의 시설 등), 자연환경(건강, 공해, 전원생활 등), 기타(그 밖의 사유)

[ 그림 16 ] 충북 청년 여성 연령대별 지역이동 사유(2021)

## 3. 충북과 다른 지역 정주 경험 및 정책 수요

• 충북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, 현재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성 11명과 현재 충북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 여성 13명을 만나 면접조사를 한 결과, 충북 출신 청년 여성들의 삶은 한국 사회에서 확인되는 다양한 사회적 이슈 및 불평등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었음

- 첫째, '괜찮은 일자리'는 청년 세대 모두 선호하는 일자리 형태이며 청년 세대의 취업, 근속 문제와 연결됨
- 둘째, 성공한 인생의 조건으로서 'in 서울' 대학 진학, 수도권 정착, 안정적이고 괜찮은 일자리, 부동산 투자 성공에 관한 진술이 확인됨
- 셋째, 사교육 및 교육 격차를 경험한 청년 세대로서 혼인상태, 자녀 유무, 자녀의 연령대에 따라 지역이동 및 수도권 정착 계획이 일자리 또는 자녀의 교육 투자를 중심으로 구성됨
- 넷째, 충북 생활의 매력으로 지목된 내용들은 연구참여자들이 수도권 등 다른 지역 생활에서 느꼈던 결핍, 즉 가족 및 지인들과의 정서적 교류, 사회참여 활동, 인구 밀집도에 따른 피로도, 주거비용 및 상대적 박탈감과 연결됨

| 구분 | **충북 거주자**(충북에 남은, 돌아온 여성) | **다른 지역 거주자**(충북을 떠난 여성) |
|---|---|---|
| **현재 거주지역의 매력** | • 충북에 안정적인(괜찮은) 일자리를 확보함<br>• 원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음(주거·생활비 절약, 자녀 돌봄 관련)<br>• 가족과 지인(연인 등)과의 정서적 교류<br>• 가성비가 좋은 정주 환경(수도권 대비 쾌적한 주거 환경, 자차 이용 가능)<br>• 익숙한 공간(동네)과 자연환경(밀집된 인구로부터의 피로감 ↓) | • 수도권(서울) 취직으로 다양한 분야와 직종에서 활동할 기회<br>• 직장에서의 성장 가능성(연봉 상승 및 경력 개발의 기회↑, 향후 이직 및 직업 계획 선택권 ↑)<br>• 상대적으로 평등한 조직 분위기, 업무 자율성과 권리 보장, 다양한 복지제도 |
| **현재 거주지역에서 개선이 필요한 영역** | • 성차별적이고 보수적인 지역 분위기<br>• 제한적이고 단조로운 여가·문화 환경<br>• 충북 시·군 간 교통 편의성 향상<br>• 자녀 양육 및 교육 환경 개선 | • 주거비 부담<br>• 수도권 취업 등에 필요한 준비 기간·비용 부담<br>• 인구밀집도에서 오는 피로감, 혼잡함, 소음과 교통 체증<br>• 지치는 경쟁적 일상, 강한 개인주의, 이기적 분위기<br>• 제한적인 가족 및 친구와의 정서적 교류 |

## 4. 충북 청년 세대를 위한 성평등한 정주 여건 조성 방안

- 청년 여성들의 충북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지원 기반을 강화하고, 노동 · 생활 · 지역적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주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
  - 첫째, 성평등한 정주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 마련
  - 둘째,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경력 유지를 위한 대안 마련
  - 셋째, 의료 · 소비 · 교통 · 주택 · 안전 등 정주 환경 기반 시설(인프라 : infrastructure) 개선
  - 넷째, 문화 · 공동체 · 사회참여 등 생활 기반 시설 개선
  - 다섯째, 성평등한 지역의 삶에 대한 가치 확산과 지역 이미지 개선
- 위와 같은 방향으로 도내 청년 여성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때 더욱 평등한 청년들의 삶을 보장하고, 청년 여성들의 지역이동 현상 역시 완화할 수 있을 것임. 또한, 청년 인력 안정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

**충북 청년 세대를 위한 성평등한 정주 여건 조성**

▼

**정책과제**

| 성평등한 정주 여건을 위한 기반 마련 | 양질의 일자리 보장과 경력 유지 |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한 시설 확충 | 생활 환경 개선 | 성평등한 지역의 삶을 위한 환경 조성 및 지역 이미지 개선 |
|---|---|---|---|---|
| • 충북 청년 관련 조례 개정<br>• 충청북도청, 충북 각 시·군별 관련 부서 협업 구조 강화<br>• 청년여성 지원기관 홍보 강화 및 운영 지원<br>• 청년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다각화 및 성과평가<br>• 도내 청년정책 홍보 강화 지속 정주자와 전입 청년 지원 강화 | • 성평등한 고용 구조 마련<br>- 여성친화 일자리 확보 및 도내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대응<br>- 성별임금격차 및 고용/승진/업무 배치 관련 성차별 문제 해소<br>- 가족친화기업 인증 확대, 일·생활 균형 지원 강화<br>• 성별 차이를 고려한 인재 육성<br>- 지역 정주·기여 조건의 장학생 지원 강화<br>- 인문 사회 분야 여성 지원 체계 마련<br>- 청년 여성 과학기술 인재 육성 및 활용 | • 시·군 간 교통 편의성 확대<br>• 시·군별 맞춤형 여성 안전 체계 마련<br>• 생애주기별 교육 접근성 강화<br>• 소아·청소년 의료 접근성 강화 및 여성 건강권 보장 | • 여가 문화 공간 확대 설치 및 홍보 강화<br>• 지역(11개 시·군)별 및 농촌 살기 프로젝트 및 지역민과의 네트워크 활성화<br>• 지역 여성 리더와 청년여성 네트워크 조성<br>• 성평등한 청년 네트워크 활성화 | • 도농복합형 및 농업 중심 시·군 성평등 인식개선을 위한 도민 교육<br>• 지역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 수립 및 시행 |

▼

**기대효과**

| 지역 청년여성 인구 유출 경감 및 청년 인력 안정화 | 차별 없이 평등한 청년들의 삶 보장 |
|---|---|

충북여성재단 CHUNGBUK WOMEN FOUNDATION
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목련로 27 충북미래여성플라자 A동 2층
T 043.285.2613 / F 043.285.2429 / www.cbwf.re.kr